교환학생 보고서

이 름	한 글	김광희	소속(학부/과)	건축학과
파견 학기	2023.01.13-07.13		파견 국가	프랑스
파견 대학	트루아 공과대학교			

❖ 경험보고서는 이후 파견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소중한 자료가 됩니다. 성실히 작성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교환학생에 관심 갖게 된 계기 및 지원 동기

평소에 유학이나 해외 취업에 많은 관심이 있었고, 건축의 견문을 넓히고자 교환학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어 회화를 잘하고 싶은 마음이 컸는데, 직접 해외에 나가 외국인 친구들과 영어로 소통해보고 싶었습니다. 제가 전공수업에서 배운 건축 역사, 유명한 건축가들의 작품이 프랑스 포함 유럽에 많이 있었고 사진과 글로 보는 것보다 직접 가서 보고 느끼는 경험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 출국 전 준비 사항과 주의 할 점(상대교 서류준비, 비자발급 절차, 항공권 구입, 수강신청 및 기숙사 신청 내용 포함)

교환학생에 선발되자마자 바로 출국 전까지 꾸준히 준비해야 합니다. 제가 제일 먼저 했던 건 입학허가서 준비입니다. UTT에서는 2월에 정식 개강이지만 1월에 intersemester로 프랑스어를 가르쳐주는 계절학기 개념의 수업이 있습니다. intersemester을 수강하고 싶으시다면 입학허가서는 비자를 위해 최대한 빨리 준비해야합니다. UTT에서 입학허가서 신청 방법 메일을 주는데 저는 그 전에 홈페이지를 찾아보고 입학허가서 신청에 필요한 자료들을 미리 준비해놓았습니다. 입학허가서를 제출하고 나서도 잘못 입력한 내용들이 있어서 2-3번 고쳐서 다시 제출했습니다. 한 번에 완벽하면 좋지만 내용이 많고 헷갈려도 수정하라고 UTT에서 메일 오니까 너무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입학허가서는 10월 중순에 제출하고 11월 22일에 받았습니다.

입학허가서를 기다리는 동안에 항공편을 끊었습니다. 학교 홈페이지에 있는 시간표를 잘 보시고 항공편을 끊어야 합니다. UTT에서는 CDG 공항으로 픽업을 지원해주고 있기 때문에 꼭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파리에서 트루아로 가는 길이 처음 혼자라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픽업 시간도 정해져 있으니 잘 보시고 항공편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언제 돌아오고 싶을지 모를 것 같아서 편도만 끊어서 갔습니다. 대신 한국행 비행기가 두 배나 비싸져 있어 돈이 더 들기는 했습니다. 저는 키세스 항공에서 학생 무료 수화물 2개 항공편으로 구매했습니다. 한국행 비행기는 프랑스-바르샤바 경유-인천 도착 비행기였는데, 바르샤바 23시간 레이오버 일정으로 하루 동안 폴란드 여행하고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저 처럼 레이오버 항공편 이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입학허가서를 받자마자 비자 준비를 했습니다. 입학허가서를 받고 이틀만에 Etudes en France에 서류 제출을 했고 12월 5일에 승인 메일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12월 7일에 Campus France 비대면 면접을 보았고 12월 12일에 영사과 비자면접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1차 서류, 2차 비대면 면접, 3차 대사관 방문 면접까지 끝나면 비자를 받을 때까지 기다리면 됩니다. 비자는 여권을 같이 제출하고 여권에 부착해서 집으로 배송받았습니다. 저는 1월 초에 미국에 갈 일이 있어서 여권을 꼭 빨리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대사관 면접 때 3분이 앉아계시는데 저는 중간 프랑스 남자분께 면접을 봤고 빨리 여권을 받아야 한다는 상황도 설명하였습니다. 다행히도 거의 2주 만에 비자를 배송 받을 수 있었습니다. 비자는

출국 날짜로부터 정확히 6개월 나왔습니다. 개인마다 다른데 더 길게 받은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자 준비하면서 프랑스에서 거주할 집을 계속 알아봤습니다. 학교에서 집을 구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해 주었는데, 쉐어하는 집 밖에 없어서 저는 다른 프랑스 친구들에게 물어 studapart라는 플랫폼에서 집을 구했습니다. 학교에서는 플랫폼 정도를 알려줄 뿐이지 계약도 혼자 다 알아서 해야했습니다. 처음에 city center에 위치한 셰어하우스를 할까 생각했다가, 친구를 모아서 구하지 않는 한 보통 남녀가 섞여 집을 쉐어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혼자 사는 호텔 레지던스를 선택했습니다. 저는 학교와 city center 중간에 위치한 Kosy equalis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프랑스는 주거 보험이 필수입니다. 저는 인터넷에 치면 가장 많이 나오는 곳에 보험을 들었습니다.
비자 준비도 인터넷 블로그에 잘 나와 있고 프잘사 카페에 가입하여 이것저것 많은 정보를 얻었습니다.

■ 파견대학 소개(크기, 지리적 위치, 기후, 주변 환경 내용 포함)

UTT는 Troyes라는 소도시에 위치해 있습니다. 기차타고 파리까지 약 1시간 40분 정도 걸리는 거리에 있어 당일치기로 파리 여행하기 좋습니다. 소도시라 비교적 안전하고 소매치기도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UTT학생들은 대부분 영어를 할 줄 알지만 주민들은 못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Troyes는 날씨가 늘 좋은 편은 아닙니다. 비도 자주 오고 가끔 우박이 내리기도 하지만 소나기성 비가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학교 부지는 큰 편인 것 같고 학교는 건물 한 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학교 안에 공원이 있어서 피크닉 하기에 좋습니다.

■ 수업 및 학사 관련 사항(수강과목 포함)

저는 intersemester로 프랑스어 수업을 들었고, 본 학기에는 French A1, Environmental economics, Intercultural business and Management 3과목을 들었습니다. 모든 프랑스어 수업은 기초반이라도 교수님이 영어가 아닌 프랑스어로 진행하셔서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Environmental economics은 프랑스 교수님이었지만 영어 수업이었고 주로 환경 경제학 계산 문제를 다뤘습니다. 중간, 기말고사 그리고 팀별 발표도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Intercultural business and Management라는 수업은 여러 나라 학생들이 듣는 수업이었습니다. 주로 모둠끼리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는 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중간고사는 없었고 기말고사와 팀별 발표가 있었습니다.

■ 숙소 및 거주 관련 사항(기숙사비, 생활비 내용 포함)

저는 Kosy equalis에 살았고 더블 배드방을 선택해 월세는 535유로 였고 보증금은 3개월치의 월세였습니다. 세탁기만 공용이고 방안에 부엌, 화장실, 책상, 의자, 식탁, 침대, 이불, 베개, 전자레인지, 접시와 냄비 후라이팬, 옷걸이도 다 있었습니다. 거리는 학교까지 걸어서 30분, 시내까지 20분 이었습니다. 혼자 살면 조금 외롭지 않을까 생각했지만 운이 좋게도 저 말고도 한국인 교환학생 4명이 같은 레지던스에 살게 되어서 그 친구들과 서로 방 옮겨 다니며 기숙사처럼 지내서 저는 매우 만족하며 살았습니다. 다른 교환학생분들의 셰어하우스도 가봤는데 가정집처럼 되어있고 마당이 있는 집도 있었고 좀 더 프랑스 집 느낌이 나서 예뻤습니다. 그리고 월세도 300유로대 정도로 훨씬 저렴했습니다. 각자의 방은 있고 화장실, 부엌, 거실을 쉐어하는 형태였는데 서로 사생활을 방해받지 않고 지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학생이면 누구나 정부보조지원금 CAf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해도 일 처리가 늦어 늦게 받거나 못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신청한지 4개월만에 3개월치를 한 번에 받았고 운 좋게 5개월치 caf를 다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이 최선입니다.

■ 파견대학 국제팀 프로그램/서비스 및 교환학생 활동 소개

트루아 공과대학교는 교환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잘 되어있었습니다. Intersemester기간에도 크레페 파티, 볼링, 레이저 게임, 주변 도시 여행 프로그램, 마을 Bar 투어 등 여러 가지 활동이 있었습니다. 본 학기가 시작하면 1:1 버디가 매칭되었습니다. 그리고 파리 투어, 놀이공원, 영화 보기, 라끌레 파티 등이 있었습니다. 또한 UTT에서는 1년에 한 번 아주 큰 파티가 열립니다. Gala라는 파티로 5월에 열립니다. 그때는 학교 전체가 파티장으로 바뀌고 유명 가수들도 와서 콘서트를 합니다. 밤에는 불꽃축제도 했습니다. 학교에서 하는 것뿐만 아니라 국제 학생 단톡방에 하우스 파티에 초대하는 글을 올리거나 같이 운동할 사람을 구하기도 하며 국제 학생들 간의 교류가 활발했습니다.

■ 학교 부대시설 및 추천 하고 싶은 동아리

아침에 학교 카페테리아에 가면 갓 나온 크루와상을 먹을 수 있습니다. 학식은 별로 맛이 없어서 주로 간단하게 도시락을 챙겨오거나 카페테리아에서 빵과 커피를 많이 먹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운동시설과 프로그램이 아주 잘 되어있습니다. 1년에 약 20-30유로 정도를 지불하면 학교에서 하는 운동 프로그램을 다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첫 일주일은 무료로 체험할 수 있게 해주어서 저는 클라이밍, 필라테스, 요가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헬스장, 배드민턴, 탁구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주로 수영장을 자주 이용했습니다. UTT학생이면 할인을 받을 수 있고 10회권을 끊어서 다녔습니다. 수영장 시설이 매우 좋았고 수심도 깊었습니다.

UTT는 동아리도 다양하게 있는데 저는 요리동아리에 들어갔습니다. 바나나 빵, 와플 등 만들었고 따로 비용을 내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끔 액티비티 동아리에서 학생들 상대로 캠프를 여는데 저는 서핑 캠프에 신청했고 가격도 매우 합리적이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매일 바다에서 서핑하고 밤에는 파티하며 서핑도 배우면서 프랑스 친구들과 친해질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 문화적 차이 및 향후 파견 학생들을 위한 TIP

언어를 잘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감인 것 같습니다. 영어로 발표 해아하는 상황에 대본을 보거나 발표를 꺼려하는 학생들은 한국인 학생들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나라 학생들은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익숙한 모습이었습니다. 영어를 잘 구사하지 못하더라도 자신감 있게 발표하는 모습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프랑스는 한국보다 개방적이지만 예의를 차리는 것에 대해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공공시설에서 크게 떠드는 것을 싫어하고 조금만 스쳐도 실례합니다, 미안합니다 라는 말을 하고 지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르는 사람이라도 눈 마주치면 인사를 하고 스몰 토크도 자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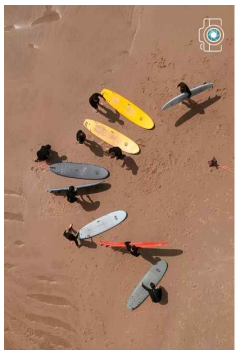
■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통해 느낀 점, 배운 점

교환학생을 통해 생각보다 사람들은 내가 무엇을 하는지 관심이 없고 개개인을 그대로 존중해주며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자신감을 얻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외국인 친구들을 보며 취미가 다양하고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취미에 깊게 파고들며 시간을 보내는 모습이 멋있어 보였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며 도전 의식이 강해진 것 같습니다.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고민하지 않고 뛰어들 수 있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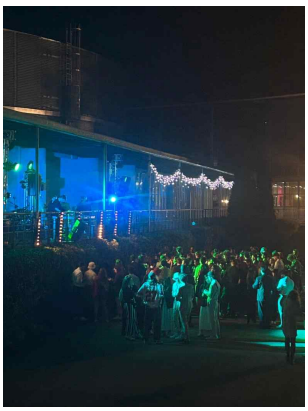
■ 기타(사진, 건의사항,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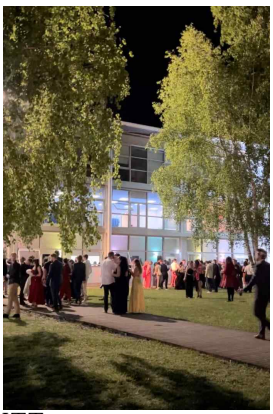
UTT

Cooking clu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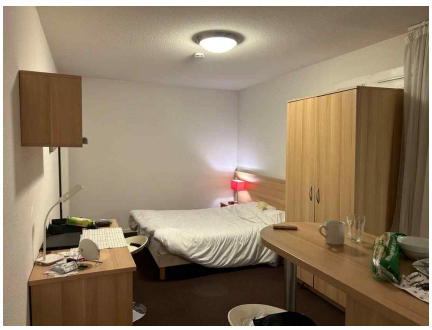


Surf cam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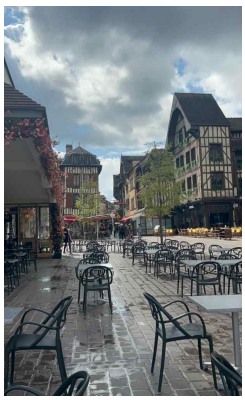




Gala UTT



Kosy equalis



City center